

# 意味解釋에 있어서의 指示內容과 指示對象

李 庸 周

## I.

言語의 문제는 意味의 문제요 意味의 문제는 指示의 문제라고도 한다. 이 말의 是是非非는 且置하고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언어와 언어의 연구에 있어서 의미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언어의 여러가지 문제는 形式과 그것이 표현하는 意味의 문제에 귀착된다. 그리고 언어의 연구 또한 의미와 형식과의 관련에서 행해지는 것이 기본이다. Saussure가 langue를 signifié와 signifiant의 聯合關係로 설명한 것이나, Ullmann이 語와 統辭의 연구를 각각 語彙形態論과 語彙意味論, 統辭形態論과 統辭意味論으로 下位區分한 것, Bloomfield가 언어 사용의 문제를 분석하여 發話行爲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언어학을 音聲의 研究와 意味의 연구로 兩分한 것 등이 모두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文法用語가 '意味-形式'의 구조를 가진 것<sup>(1)</sup> 또한 우연한 일은 아니다. 언어의 연구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端的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이 상호간 의사 소통을 위한 표현·전달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인간이 만들고 의사 소통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각 言語形式은 비로소 어떤 사물을 指示하고 어떤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sup>(2)</sup> 다시 말하면 각 언어형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의미·용법을 가지느냐가 결정된다.

언어형식의 의미는 그 사회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언어형식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 이미 慣習으로

(1) '名-詞, 動-詞'와 같은 품사명이나 '單(複)數-形' '過去(現在·未來)-形' '能(被)動-詞' '使動-詞' 등 用語에서 分離符號 左側은 意味이고 右側은 言語形式이다.

(2) 用語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語가 指示對象을 '代表한다'거나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指示한다', 그리고 語와 의미와의 관계에서는 '表現한다'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고정된 바에 따라 특정 사물을 지시하고 특정 의미를 표현하도록 언어형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언어학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바로 이 형식과 의미와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언어는 表現形式이다. 그 형식은 반드시 표현해야 할 의미와의 대응에서만 언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언어형식은 의미를 표현하고 의미는 언어형식을 선택한다. 언어형식이 표현·전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언어 사용자들이 의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韓國語를 중심으로, 話者가 표현하고 聽者가 해석·이해하는 의미가 사람의 指示內容과 언어가 지시하는 對象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살펴보고 한다.

Ⅱ에서는, 指示關係 논의에서 ‘象徴—指示’ ‘指示—指示對象’ ‘象徴—指示對象’의 관계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 Ⅲ에서는 現實的인 發話例를 중심으로 그 意味를 사람의 指示內容이라는 측면에서 살핀다. 그리고 Ⅳ에서는 언어형식이 指示하는 對象이 意味의 解釋에 관여하는 문제를 개관한다. 끝으로 Ⅴ에서는 意味의 分析·記述이나 그 解釋에서 指示內容과 指示對象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필자 나름의 임시적인 결론을 정리한다.

用語는 象徴·語·言語形式; 指示·指示內容·記憶心像·心理內容; 指示對象·被指示物·事物 등을 각각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되 그 선택은 文脈에 따라 자유롭게 한다.

本稿는 필자의 만용일 수도 있는 하나의 試圖이며 冒險의 출발이다. 아직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方法을 제시할 階梯에 있지 않다.

## Ⅱ.

‘指示’의 문제는 언어철학이나 심리학의 중요 관심사의 하나이다.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은 사람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며 인식의 대상이다. 그들은 인간의 精神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각각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인간의 視角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인식의 대상인 사물과의 여러가지 관계, 인식의 주체인 사람의 지식 정도, 누적된 경험 등등에 의해

서 동일 대상에 대한 인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가 버릇처럼 이용하는 코끼리와 장님의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코끼리를 처음 경험하는 장님들이 각각 코끼리의 다른 部位를 만져 보고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도 하고 바람벽 같다고도 했다는 얘기가. 장님들이, 코끼리가 기둥 같다고 하거나 바람벽 같다고 하거나 그것은 경험을 달리한 장님들의 指示內容일 뿐, 코끼리 자체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정상적인 視覺의 소유자가 보던 코끼리는 기둥 같지도 않고 바람벽 같지도 않다. 그런데 視覺이 아무리 정상적이라 하여도 그의 지시내용이 완벽한 것이 아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코끼리의 많은 특징이 있는 것이다. 무지개의 빛깔을 두 가지로 보거나 일곱 가지로 보거나 완벽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끼리'라는 명칭은 코를 가진 다른 생물에 비해서 유난히도 긴 코를 가졌다는 특징이 그 契機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 기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각각 독자적인 視角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指示對象의 유난히 긴 코에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志向]하고 그 指示(일반적으로 이것을 의미라고 본다.)를 상징화한 것이 '코끼리'라는 語다. 결코 현실로 존재하는 동물 그 자체를 상징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指示對象을 志向하는 사람의 心理內容 즉 指示를 象徴의 의미라고 보는, 이와 같은 관점을 心理主義라고 해 왔음은 주지하는 바다.

指示關係는 語·指示·指示對象<sup>(3)</sup> 三者의 相互關係다. 그리고 指示關係 논의는 類似關係와 因果關係를 기반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類似關係나 因果關係만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필자의 생각은 앞으로 개선될 것이다.

소위 經驗主義者의 견해에 따라 '코끼리'의 문제를 거론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指示對象인 '象'과 指示內容은 類似關係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고, 指示內容과 象徴인 '코끼리' 사이에는 聯合이라는 心理法則에 의해서 매개되는 因果關係가 작용한다. 유난히 긴 코를 가진 '象'은 사람의 마음 속에 記憶心像으로 刻印된다. 記憶心像은 指示對象인 '象'과 形態上으로 類似하다. 指

(3) referent의 의미로 사용한다. (被)指示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物理적으로 실재하는 물건이 아닌 경우도 고려하여 指示對象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示對象과 형태상으로 類似한 心像은 ‘코끼리’라는 象徴을 창작하는 근거가 된다. 이들은 상호 喚起의 관계를 가진다. 이에 因果關係가 형성된다. 이들 ‘指示—指示對象’ ‘語—指示’의 관계는 自然論理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한다. ‘코끼리’와 ‘象’의 관계는 歷史的 偶然에 의한 慣習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語의 恣意性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時點에서 그런 ‘象’을 ‘코끼리’라고 命名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慣習에 불과한 이들의 관계는 自然論理로 설명될 수 없다<sup>(4)</sup>고 한다. Ogden & Richards의 基本三角形에 의한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5)</sup>

이와 같은 指示關係의 설명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Berkeley에 의해서 제기된 反論에 따르면 心像은 항상 特定한 個體인 ‘象’의 것이지 그 集合을 表象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Hume은 推論에 있어서는 心像이 普遍的인 것처럼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많은 ‘象’은 각각 다른 것과 상이한 특성을 가지지만 ‘象’一般의 記憶心像을 형성하는 데 의미가 없는 특성들은 도외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히 해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코끼리’라는 象徴의 경우에는 ‘象’의 긴 코가 그대로 사람의 指示內容이 되고 그것을 상징화하여 ‘코끼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記憶心像이라는 媒介項을 통해서 指示對象 ‘象’과 慣習적으로 關係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象의 긴코’라는 現實(reality)이 ‘코끼리’라는 語形成의 기반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코끼리’와 그 指示對象과 사이에 因果關係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象徴의 恣意性이란 指示對象과 象徴사이에 自然的인 有緣性을 가진 象徴이 창작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 有緣性을 가지도록 象徴을 창작하는 경우에도 사람은 指示對象의 많은 特性 중에서 어떤 것을 命名의 기반으로 해도 무관하다. 앞에

(4) 擬聲語는 이렇게 설명될 수 없다. 의성어는 指示對象에게서 발해지는 音響을 모방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指示對象의 現實的인 音響的 特性이 그대로 投射된 것이다. 단순한 慣習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 사이에는 틀림없이 類似關係가 존재한다. 의성어는 自然的인 有緣性을 가진다.

(5) 일반적으로 指示關係의 논의에서 ‘象徴-指示對象’의 관계를 慣習으로 보고, ‘象徴-指示(內容)’ 사이의 관계를 因果關係, ‘指示(內容)-指示對象’ 사이의 관계를 類似關係로 본다. 그러나 指示關係를 類似關係나 因果關係 하나로 설명하기도 한다. Ogden과 Richards의 基本三角形에서는 ‘象徴-指示’ ‘指示-對象’ 사이에서 모두 因果關係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서 象徴과 指示對象과의 關係를 自然論理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擬聲語와 같은 경우는 例外라고 脚註 4)에서 언급하였다. 擬聲語야 말로 象徴과 그 指示對象 사이에서 類似關係가 성립되는 분명한 例인 것이다.

‘코끼리’와 같은 自然的인 有緣性을 가진 象徴과 指示對象 사이에서는 類似關係라고 하기보다는 因果關係가 성립된다고 본다. 적어도 ‘象徴-指示對象’間的 類似關係나 因果關係가 망각되지 않고 아직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限, 象徴과 指示對象 사이에는 慣習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語源的으로도 自然的인 有緣性은 물론 言語內的인 有緣性마저도 없는 것이 분명한 象徴이 있다면 그런 것만이 순수하게 慣習的인 것이 아닌가 한다. (6)

요컨대 擬聲語와 같은 경우에는 ‘指示-指示對象 사이에서 뿐 아니라 ‘象徴-指示對象’ 사이에서도 類似關係가 작용하며, ‘코끼리’의 경우에는 ‘指示-指示對象’ 사이에서는 類似關係가, 그리고 ‘象徴-指示對象’ 사이에서는 因果關係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言語形式의 의미를 사람의 心理內容에만 국한해서 설명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 言語가 가지고 있는 모든 語가 指示關係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의 指示關係 논의가 거의 物理的으로 實在하는 事物을 指示하는 名辭(name)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사람의 心理內容이란 자신의 內省이나 他人에 의한, 行動 기타의 觀察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心理內容에 의한 의미의 분석·기술은 客觀性和 確實性を 缺如하기 쉽다. 그래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 客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實在하는 事物에 입각해서 言語의 意味를 분석·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IV에서 거론하는 바와 같이 指示對象의 分析·記述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의미·용법을 분명히 기술·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發話도 있다는 점 놓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指示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研究되고 충분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指示關係에 의하여 한 特定 言語의 모든 言語

(6) Guiraud는 모든 語가 語源的으로 有緣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實證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코’ ‘길다’와 ‘코끼리’는 言語(內)的 有緣性을 가진다고 하거니와 이런 경우 완전히 관습적인 것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形式의 의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1. 指示理論이 적용될 수 있는 言語形式. 語에서부터 文이나 그 이상의 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어형식이 指示作用을 가지는가? 語나 文의 여러 가지 종류나 구조적 차이에 따라 형편이 달라지는는 않는가? 등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抽象語나 文法的인 意味를 나타내는 形式과 主觀的인 價値判斷이나 情緒등 사람의 心理內容을 나타내는 言語形式의 문제가 어려운 課題가 될 것이다.

2. 言語形式에 의해서 指示되는 對象. 物理的으로 實在하는 물건과 사건, 사람의 心理內容과 같이 직접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現象, '龍'과 같은 創作的 想像의 產物, 등 어떤 性質의 것이 指示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指示對象을 가지는 言語形式과 그렇지 않은 言語形式을 구별하는 基準도 필요하다.

3. 指示를 사람의 心理內容이라고 보고, 動詞도 指示對象을 가진다고 하는 경우, 그 語幹에 의해서 상징화되는 指示의 內容과 語尾에 의해서 표현되는, 事件이나 主體 또는 聽者에 대한 話者의 主觀的인 態度와의 관계.

4. 사람의 心理內容·心理現象이라고 하는 것과 모든 指示對象을 효과적으로 분석 설명할 수 있는 방법.

5. 刺戟의 의미를 反應으로 설명하려는 行動主義 觀點에 대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 Ⅲ.

指示關係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동일한 물건이나 사건도 사람에 따라서, 또 視角에 따라서 달리 인식· 파악된다. 관찰하는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 도덕성, 일시적인 감정,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동일 대상도 달리 파악될 수 있다.

한 쌍의 소년과 소녀가 한 자리에 있고 그 중 소년이 소녀를 때렸다. 소녀는 아무말 없이 그 자리를 떴다. 이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1)과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2)와 같이 생각될 수 있다.

(1) 철수가 영희를 때렸다.

(2) 영희가 철수에게 맞았다.

사건은 하나다. 그러나 그 사건은 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이해 관계가 다르고 또 각각 親疏의 정도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한 사건을 관찰하는 視角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 독자적인 視角에서 인식한 사건을 상징화한 것이 (1) (2)와 같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指示內容이 그것을 표현하는 象徵體系를 선택한다. (1)은 철수를 주체로 하여 사건을 본 것이며 (2)는 영희를 중심으로 사건을 본 것이다. 철수는 행동을 했으며 영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때리다'는 動作動詞지만 '맞다'는 動作動詞가 아니다.

다음 (3)과 (4)도 한 場面의 사건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3) 어머니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4)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

이때는 동작주가 둘이다. 신생아지만 입에 든 음식을 삼키는 그 자체도 동작이다. 본능적이라 하더라도 동작은 동작이다. 동작주가 둘이면 그 사건은 최소 각 동작주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 視角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必然이다. 사건을 인식하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은 指示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시내용에 따라 象徵體系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다른 예를 보기로 한다. 철수가 복남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남이는 공부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5)와 (6) 같은 대화가 오갈 수 있다.

(5) 복남이 너 지금 뭐 { a. 하니?  
b. 하고 있니?  
c. 했니?

(6) 나 지금 { a. 공부한다.  
b. 공부하고 있다.  
c. 공부했다.

대체로 (5)의 a~c와 같이 달리 물으면 각각 (6)의 a~c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a b c 어떤 형태로 묻고 어떤 형태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다만 a b c와 같은 서로 다른 象徵體系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화자로서의 指示內容의 차이이다. (5)의 a b는 복남이의 예상되는 행동을 進行

中인 것으로 想定한 것이고 c는 完了(또는 過去)<sup>(7)</sup>로 상징한 것이다. 응답하는 복남이도 마찬가지다. 복남이는 통화하는 동안 공부를 중지했을 수도 있고 통화하면서 계속 책을 볼 수도 있다. 또 통화후에 공부는 계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5) a~c의 어떤 형태의 물음에 대해서도 각각 (6) a~c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다만 a~c중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는 묻는 형태와 응답하는 사람의, 자신의 공부에 대한 指示內容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다. 進行中인 것과 完了된 것 어느 쪽으로 인식하느냐가 응답의 상징체계를 결정한다.

언어적 표현이, 그것이 지시하는 現實과 완전히 괴리된 경우도 있다.

(7) 조금 있으면 해가 뜬/진다.

(7)은 科學的으로 실증될 수 없다. 현재의 과학 지식으로 보아 완전히 거짓이다. 成人들이라면 太陽이 自轉도 公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말의 사용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습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이 처음 쓰이던 시기로 소급하면 충분히 이유가 있다.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는 동안 太陽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科學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太陽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주위에 있는 山川이나 樹木 그리고 地球 그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知覺하거나, 밝혀 낼 만큼의 지식이 없었다. 사실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太陽의 이동을 확신했다.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해가 뜨고 진다'고 말한 것이다.

太陽의 경우처럼 科學的 知識의 缺如로 인한 그릇된 指示를 象徵化한 경우와는 달리, 개인적이고 單一回的인 그릇된 指示가 象徵化되는 일도 있다.

철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의 顔面表情을 보고 (8)과 같이 말했다.

(8) 철수는 화났다.

그런데 철수는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마음이었다. 그의 용모나 또는 태도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가상해 놓고 보면 (8)은 철수의 現狀과 전혀 무관하다. 결국 (8)은 그릇 판단한 內容을 象徵化한 것이다. (7)과 (8)의 경우 言語의 '誤用'이 거론되지 않는다.

(7) 여기서는 '-었-'을 '完了'로 처리하지만 '過去'로 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



(9)의 a b는 각각 '여우'가 본디의 의미와 譬喩的인 의미 두 가지로 쓰인 例다.

- (9) a. 여우는 개科에 속하는 짐승이다.  
b. 영희는 여우다.

a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여우'라는 명칭을 가진 짐승의 집합이 개科에 속한다는 전문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b의 경우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사전에는 "몹시 교활하고 변덕스러운 여자"라는 의미가 수록되어 있다. 그만큼 이런 의미가 관습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언어의 용법은 여우의 속성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指示하는 것이다. (9)b는 화자의 주관을 표현한 것이다. 여우와 영희 두 지시대상에 공통된 속성으로 인한 轉用이며 완벽하게 화자의 指示內容을 상징화한 것이다.

(10)은, 소위 指令的인 용법의 언어다.

- (10) 서울 시민은 깨끗하다.

이것은 어느 지하도에 붙었던 말이다. 형태상으로는 陳述과 같다. 그러나 이것을 써 붙인 사람들은 서울 시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써서 붙인 것이다. 이것은 서울 시민의 어떤 현상에 대한 판단의 언어적 표현이 아니다. 의미상으로는 陳述이 아니다. 서울 시민에게 깨끗하게 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요구 사항을 표현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화자의 심리내용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용법의 언어로서 (11)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11) a. 우리 애기 참 착하다.  
b. 철이는 참 장사다.

(11) a는 떼를 쓰는 어린이에게 떼 쓰지 말고 양전하게 굴도록 요구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말이며 b는 넘어져서 우는 어린이에게 울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말이다.

(12)의 a~d는 각각 陳述・疑問・命令・感嘆이다.

- (12) a. 철아, 나,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  
b. 영희야, 너 몇 시에 왔니?  
c. 순이야, 어서 나가 놀아라.

d. 오, 내 새끼.

(12) a는 할머니가 손자인 철이를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判斷을 표현한 것이다. b는 영희가 몇 시에 왔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화자의 심리내용을 표현하고 그 대답을 기대하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c는 순이가 밖에 나가 놀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리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그것을 순이에게 전달하고 순이가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는 말이다. d를, 할머니가 손자 귀여운 나머지 충동적으로 발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a의 경우와 같은 자신의 愛情에 대한 판단을 표현한 것과 구별된다. 같은 애정의 표시라 해도 하나는 平叙文이고 하나는 感嘆文이다.

(13) 龍이 비를 내린다.

(13)은 거짓이다. ‘龍’이라는 象徵 자체가 物理적으로 실재하는 動物의 名辭가 아니다. ‘龍’은 인간의 想像에 의해서 創作된 心像일 뿐이다.<sup>(8)</sup> 그러나 (13)은 엄격하게 따지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龍’의 心像과, 그것이 비를 내린다는 想像的인 事件을 指示對象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는 指示에 대한 體系的이고 綜合的인 연구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각 發話의 의미를 인간의 心理內容에만 의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발화의 纖細하고 구체적인 意味의 形成이나 解釋이, 그들이 나타내는 事物과 완전히 絶緣된 인간의 心理內容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發話의 의미를 正確히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兩事項의 分析·記述이 모두 필요하다. 외계에 실재하는 물건이나 사건을 독자적인 視角에서 본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떤 個人의 單一回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必須選擇이다. 예컨대 (1)과 (2)의 사건을 관찰한 사람들이 각각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을 (1) (2)와 같이 두 가지 視角에서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必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4) 또한 그러하다. (7)의 경우, 모든 사람이 太陽의 운동을 믿게 하는 環境이 충분히 갖추

(8) ‘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동물은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輪廓을 아주 비슷하게 그릴 수 있다. 오래 전부터 想像圖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인의 머리 속에 刻印되어 있는 것이다. ‘龍’은 抽象名詞는 아니다.

어져 있다. (9)에 있어서는 物理적으로 實在하는 여우와 영희 사이에 공통되는 特性이라는 점에서 類似關係가 있어서 그것이 話者의 指示를 결정한 것이다. 영희를 '여우'라고 부른 것과 指示對象 '영희'와 '여우'의 공통 특성과의 관계는 因果關係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龍'과 같은 경우는 物理적으로 實在하는 指示對象이 없으니 그 意味는 완벽하게 인간의 心理內容만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여기 II에서 거론한 기타의 경우도 意味형성이나 그 해석·이해가 指示對象 내지는 現實에 依存하는 바가 全無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心理內容을 表現한 것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發話의 경우에도 그들의 指示關係를 自然論理로 환원해서 說明할 수 있는 可能性은 없지 않다.

#### IV.

言語活動을 규정하여, 화자가 자신의 심리내용을 표현하고 타인을 감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식이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發話가 화자의 심리내용을 표현한다는 것은 굳이 '指示'論을 빌지 않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화자의 指示內容이 언어에 의해서 표현 전달되는 것과는 달리 指示對象이 언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name과 sense만이 언어의 문제라고 한 Ullman의 말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언어의 意味에 있어서 指示와 指示對象이 대등한 자격을 갖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가 指示內容에 의해서만 충분히 기술·설명되지 않는 못한다. 指示內容만으로 象徵體系의 의미가 충분히 기술·설명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도 의외로 指示對象의 분석·기술에 의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發話 성분이 指示하는 對象의 속성 분석이 발화의 상세한 구체적 의미를 확인하는 데 기여하는 바는 적지 않다.

對象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象徵體系의 의미를 기술하거나 解釋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단, 모든 發話가 원칙적으로 話者의 心理內容을 表現한다는 것은 論外로 한다.

(14) 는 內訓에서 인용한 것이다. ‘不能’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한 것이며 그 근거가 바로 여기서 거론하려는 문제와 부합되기에 援用한다.

(14) 큰 뉘홀 뼈 북녀 바를 건너를 사롬드려 널오디 내 잘못하리로다 하면 이는 진심으로 잘못호미어니와 땅장를 원하야 가지 것구를 사롬드려 널오디 내 잘못하리로다 하면 이는 하디 아니홀 쉰니언딩 잘 못하야하는 주리 아니라 하시니 (下線 筆者)

언해의 ‘잘못하다’는 ‘不能’을 번역한 것이다. 태산을 끼고 北海를 건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不能’이라고 한 것은 진실로 ‘不能’의 의미이며, 長者를 위하여 折枝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것을 ‘不能’이라 한다면 그 ‘不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不能’이 아니라 ‘不爲’라고 말한 것이다. 意味論의 한 구절과 같은 내용이다. 요컨대 ‘不能’의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미의 구분은, 대상인 行動이 하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絕對不可能한 것이며, 하나는 할 의사만 있으면 아주 용이하게 해 낼 수 있는 것임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15) 물이 맑고 푸르다.

(15)의 각 성분의 실질적인 의미는 ‘水·淸·綠’이다. 그런데 (15)는 ‘물이 깊다’는 의미를 갖는다.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맑다’의 사전주석 중 물과 관계 있는 것을 보기로 한다. “다른 것이나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아니하여 깨끗하다”로 설명되어 있다. 푸른 물감을 풀어서 물이 푸르게 보인다면 그것은 맑은 것이 아니다. 또 맑은 물을 작은 그릇에 퍼 담은 정도로는 푸르게 보이지 않는다. ‘水·淸·綠’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깊은 물’이 된다. 이것은 물의 속성에 의한 것이며 사람은 경험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얻는다.

(16)은 동사 ‘가다’가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인 예들이다.

- (16) a. 여기 있던 강아지가 어디 갔느냐?  
 b. 순희야, 북남이가 지금 철이네 집으로 갔다. (出發하다)  
 c. 저기 가는 사람이 북남이다. (行進하다)  
 d. 철아, 북남이가 너의 집에 가거든 나에게 전화로 알려라. (到着하다)  
 e. 달이 가고 해가 가다. (세월이 지나다)  
 f. 저승으로 가다. (죽다)

- g. 입맛이 가다. (입맛, 음식의 맛이 변하여 안 좋아지다)
- h. 전기불이 가다. (꺼지다)
- i. 그 사람 한물 가다. (전성기가 지나다, 정신이나 기타 능력 같은 것이 없어지다)
- j. 주름살이 간 얼굴. (생기다)
- k. 여기 있던 만년필은 어디 갔니?

이들 중 a~d는 '가다'가 기본적인 의미<sup>(9)</sup> 그대로 사용된 것이다. 그래도 b~d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이들은 각각 '出發·行進·到着'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a와 k를 비교하면, a에서는 강아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므로 '가다'가 기본적인 의미대로 쓰인 것이지만, k에서는 만년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다'의 기본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다. k는 (16) k'와 같은 의미의 발화가 될 수도 있다.

(16) k' 여기 있던 만년필은 누가 치웠니/가져 갔니?

다음 k''와 같은 의미의 발화로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16) k'' 여기 있던 만년필은 어디로 굴러 떨어졌니?

정상적인 발화라면 (16) k''는 獨白인 경우에만 자연스럽다. 만년필이 어디로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k''와 같이 말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기본적인 의미와는 다른 용법으로 쓰인 e~j의 의미는 각각 括弧안에 있는 대로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의미를 구별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은 역시 발화 성분이 지시하는 對象의 속성이나 발화 전체가 지시하는 現實의 狀況이다. 특히 b~d의 의미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持續未完結動作動詞인 '가다'가 지시하는 동작의 속성이다. 기본적인 의미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이되 그 방향은 화자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一連의 행동은 다시 세 개의 동사로 指示되는 '行動의 集合'이다. '出發하다—行進하다—到着하다'의 三段階다.

수수께끼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指示하는 對象을 찾게 하는 것이다.

(9) '특정한 곳을 향하여 움직이되 話者의 위치에서 멀어지다'를 기본적인 의미로 잡는다. 이것이 조금씩 변하여 다른 여러가지 의미로 쓰인다.

- (17) a. '아침에는 네 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 것'이 무엇이나?  
 b. '먼 산 보고 절하는 것'이 무엇이나?

(17) a의 ' '안의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은 '사람'이고 b의 ' '안의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은 '방앗공이'다. 이런 경우 a와 b의 意味가 각각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것은 指示對象으로서의 '사람'과 '방앗공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방앗공이'의 이미지라고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미지보다는 指示對象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固有名詞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거나 특이한 것만은 사실이다. 고유명사의 指示對象은 그 이름을 가진 個體다. 그러나 고유명사의 內包의 有無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는 일괄적으로 거론할 것이 아니다. 우선 心理主義와 物理主義의 두 관점을 구별하고, 고유명사의 所有主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 소녀가 '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機械主義나 物理主義나 하는 관점에서는 指示對象 자체를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숙이'라는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指示하는 對象이다. '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特定 個人이 그 의미다.

심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숙이'라는 고유명사의 所有主인 소녀를 잘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소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소녀의 여러가지 特性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녀의 여러가지 特性이 '숙이'라는 고유명사의 內包 내지는 意味가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고유명사의 의미는 지시대상을 아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는 달리 소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숙이'라는 固有名詞에는 內包 내지는 意味가 없다.

少女를 잘 아는 사람의 경우 고유명사가 의미를 가진다 해도 그것은 指示對象의 여러 特性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숙이'의 의미는, 굳이 찾는다면, 指示對象 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고유명사는 그 指示對象에 의해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이상 몇 가지 發話例로 그 의미 해석에 있어서 발화 성분의 指示對象의 特性이 關鍵이 되는 문제를 일별하였다. 그런데 이들 발화에서도 Ⅲ에서와 같이 話者의 心理內容의 表現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는 점이 있음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4)에서 '折枝'가 '不能'이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직접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피하려는 화자의 心的態度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15)의 경우도 그것이 自然界의 특정 現象에 대한 話者의 判斷의 표현이라는 설명을 할 수도 있다. (16)에서도 陳述은 話者의 判斷의 표현이고, 疑問은 화자가 알고자 하는 바 意中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反應을 요구하는 발화다. 命令은 또 화자가 원하는 바 의중을 표현·전달하여 타인에게 특정 행동의 作爲와 不作爲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f의 '저승으로 가다' 같은 婉曲한 표현이나 기타 譬喩的인 표현은 그들 나름으로 Ⅲ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의 심리내용이 언어형식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Ⅳ에서 살펴 본 發話들 거의가 사람의 심리내용의 표현이라는 각도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發話가, 用言의 叙述終止形이나 'N+이다'의 변화에 의해서 事件이나 主體·聽者에 대한 話者의 心的態度를 表現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V.

名辭는 有緣性을 가지도록 창작될 수도 있고 無緣的으로 창작될 수도 있다.

1. 語源的으로 自然的 有緣性을 가지는 경우: Guiraud의 말과 같이 모든 語가 語源的인 유연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람은 名辭의 창작에 즈음하여,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特性이 발견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命名하는 것이 보통이다. 特出한 것이 없을 때는 指示對象의 여러가지 特性 중 하나를 택하여 그것에 입각해서 命名한다. 어떤 特性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2. 指示對象의 어떤 特性과도 무관한 名辭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語는 완전히 無緣的이다. 이런 名辭의 용법은 전적으로 慣習에 의한 것이다.

3. 기존의 언어형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語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語는 言語內的인 有緣性을 갖는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命名해도 좋다는 것이 바로 恣意性의 本質<sup>(10)</sup>

(10) 언어기호의 恣意性을 象徴과 指示對象과 사이에 아무런 自然的 有緣性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指示對象 자체의

이다.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語 내지는 象徴과 指示對象과의 관계는 각각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 自然的인 有緣性を 획득한 象徴은 指示對象과 類似關係나 因果關係를 가진다. II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擬聲語는 類似關係, ‘코끼리’는 因果關係에 의해서 指示對象과 대응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指示內容과 指示對象 사이에서는 類似關係가 성립된다.

‘코끼리’나 ‘개미핥기’라는 動物名은 言語內的인 有緣性を 가진다고 설명되는 名辭다. 이런 경우 象徴과 指示對象 사이에는 因果關係가 작용한다. 코가 기니까 ‘코끼리’요 개미를 핥아 먹으니까 ‘개미핥기’다.

아무런 유연성도 가지지 않도록 창작된 名辭의 경우는 固有名辭(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象徴과 指示對象 사이에는 類似關係도 因果關係도 없다. (11)

적어도 自然的인 有緣性이 확인되는 경우 指示內容을 媒介로 해서만 象徴과 指示對象의 關係를 설명하려는 일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 象徴은 指示內容과 못지 않게 指示對象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굳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指示內容을 분석·기술함으로써 象徴의 意味를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指示對象을 분석·기술함으로써 象徴(體系)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解釋하는 것이 意味의 說明이나 解釋의 客觀性은 물론 纖細度나 信賴度を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象徴과 指示對象의 관계에서, 類似關係나 因果關係가 認知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들 관계가 다만 歷史的 偶然에 의한 慣習일 뿐이라고 하고 自然的關係로 환원할 수 없다거나 自然論理로 설명할 수 없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창작 과정에서부터 無緣的인 象徴으로 탄생한 것이라면 歷史的 偶然에 의한 慣習이란 말이 적중할 것이다. 획득된 自然的인

特性에 입각해서 象徴이 창작되는 경우와 많은 語들이 言語(內)的 有緣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有緣的인 語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어렵다.

- (11) 韓國人의 姓名에서는 우선 一家가 같은 ‘姓’이라는 것, 行列이 같으면 같은 文字 하나가 이름 속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固有名詞(辭)는 완전히 無緣的인 것은 아니다. 언어기호가 恣意的이라는 것은, 象徴과 그 指示對象 또는 指示內容(이들 둘은 類似關係를 가진다.)과 사이에서 類似關係나 因果關係가 성립되도록, 象徴을 창작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전혀 없도록, 象徴을 창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有緣性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 그것을 알 수 없거나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없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Ⅲ Ⅳ에서 보인 것과 같은 發話例에서 특정 發話가 話者의 指示內容을 表現한 것으로 충분히 설명되더라도 指示對象의 여러 特性이 意味의 形成에 關係하고 있고 따라서 指示對象의 分析·기술이 發話의 意味를 보다 正確하고 纖細하게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關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Ⅳ에서는 發話를 구성하는 成分(들)의 指示對象(의 特性)에 의지해서 發話 전체의 의미나 특정 成分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을 고찰하였거니와, 모든 發話가, 用言의 叙述終止形이나 'N+이다' 등의 변화에 의하여 事件이나 主體 또는 聽者에 대한 話者의 心的態度를 表現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語나 語의 集合으로 이루어진 發話의 意味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위해서는 指示內容이나 指示對象 어느 하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 言語에 속하는 모든 言語形式의 의미를 體系的으로 記述·說明하려면 指示內容과 指示對象 두 事項의 分析·記述로도 오히려 不足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參 考 文 獻

- 金敏洙, 國語意味論, 서울, 一潮閣, 1981.  
 沈在箕·李基用·李廷玟, 意味論序說, 서울, 集文堂, 1984.  
 李乙煥·李庸周, 國語意味論, 서울, 首都出版社, 1964. (1975 改訂版, 玄文社)  
 李庸周, 意味論概說,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2.  
 李益煥, 現代意味論, 서울, 民音社, 1984.  
 李益煥, 意味論概論, 서울, 翰信文化社, 1985.  
 千時權·金宗澤, 國語意味論, 서울, 螢雪出版社, 1971.  
 Berkeley, G.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 First published 1710, G.J. Warnock (Ed.) London: Fontana Library, 1962.  
 Bloomfield, L. Language: London: Allen and Unwin. 1935.  
 Brown, R.W. Words and Things: New York: Free Press, 1958.  
 Brown, R.W.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Clark, H.H. and Clark, E.V.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Atlanta: Harcourt Brace

- Jovanovich, Inc. 1977.
- Dubois, J. et al.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ibrairie Larousse, 1973.
- Fodor, J.A. Bever, T.G. and Garrett, M.F. *The Psychology of Language: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McGraw-Hill, Inc. 1974.
- Hörman, H. *Psychologie der Sprache: zweite, Überarbeitete Auflage, Mit 53 Abbildungen*,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New York: 1977.
- Hume, D.A. *A Treatise of Human Nature. Vol. I: Originally published, 1739.* London: Dent, 1960.
- Lakoff, G. and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Leech, G. *Semantics*: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Ltd. 1974.
- Miller, G.A. and Johnson-Laird P.N. *Language and Perceptio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Mowrer, O.H., *Learning Theory and the Symbolic Process*: New York: Wiley, 1960.
- Ogden, C.K. and Richards, I.A. *The Meaning of Meani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Language upon Thought and of the Science of Symbo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First published 1923, 10th ed., 1956.
-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72. (Pour la nouvelle édition)
- Ullmann, S. *The Principles of Semantics*: Oxford: Basil Blackwell and Mott. Ltd. 1959.
- Ullmann, S.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1967.
- Werner, H. and Kaplan, B. *Symbol Formation*: New York: Wiley, 1967.